

곤충·양잠산업 '희비'... '농업정책 쓸림' 탓

농식품부, 2017년 곤충·양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곤충 사육농가 2136호로 1년 전(1261호)보다 69.4% 증가 양잠 농가수는 4917호로 1년 전(5661호)보다 13.1% 감소

지난해 곤충과 양잠 산업 희비가 극명히 갈렸다. 곤충 사육농가 수가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사상 최대로 늘어난 데 반해 양잠 농가는 역대 최소치를 찍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발표한 곤충·양잠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곤충 사육농가는

2136호로 1년 전(1261호)보다 69.4% 증가했다. 곤충 사육농가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다. 정부는 2010년 8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선진 2년 후부터 곤충산업 실태조사를 벌였다. 2012년 388호에 그치던 곤충 사

육농가는 2013년 384호로 거의 늘지 않았다가 2014년(464호)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해 2015년 724호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1000호를 처음 돌파했고 1년 만에 2000호를 넘겼다. 곤충산업 종사자 수도 사상 최대인 3194명을 기록했다. 곤충별 신고 현황과 판매액은

'흰집박이꽃무지'가 1195개호(166억원)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장수풍뎅이' 415호(24억원), '귀뚜라미' 384호(56억원), '갈색거저리' 282호(24억원), '사슴벌레' 158호(12억원) 순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과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등 곤충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잠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양잠 농가 수는 4917호(누에 사육 735호·오디 재배 4182호)로 1년 전(5661호)보다 13.1% 감소했

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다. 양잠 농가는 1976년 49만호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급감하다가 1992년 우르파이라운드협상(UR) 이후 사실상 산업이 붕괴돼 이듬해 1만호로 줄었다. 이 관계자는 "양잠 농가의 59%가 61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된데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 뒤처면서 수익이 줄면서 타작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양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식품·의료용 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양잠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전북개발공사, 임실 농어촌 임대주택 청약율 177% 마감

장계 농어촌 임대주택에 이어 임실 농어촌 임대주택도 평균 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률 마감했다. 27일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에 따르면 임실 농어촌임대주택 청약률 마감한 결과 62세대(특별공공 33세대 제외) 모집에 총 110건이 접수돼 평균 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인기 주택형은 84형(이하 전용면적 기준)으로 47구 모집에 1순위 40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형은 58가구에 1순위 49명, 2순위 21명이 접수 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4일이며 자산, 소득 등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일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군지역으로 드물게 넉넉한 지하주차장과 나눔 텃밭 시니어 마당 등 입주인 편의공간 제공, 성공적인 청약사세 같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주거기회 창출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임대주택 2단계 사업인 진안군 진안읍 100세대(44형 50, 59형 50), 무주군 설천읍 80세대(44형 40, 75형 40)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한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

'최저임금 제도개선·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

한국노총이 약 한달 만에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

종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달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 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와 정부정책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복귀 시기는 김주영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노총에 따르면 한노총과 여당은 정책실무협의를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이전인 2018년도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 저하 방지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약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상입법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시작으로 사회적대화를 전면 보이콧 했다. /김영태기자

전북농협지역본부- 전주이중요양병원 업무협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본부(위원장 박병철)는 지난 28일 전주이중요양병원(원장 장원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단체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전북농협 가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다. 더욱이 전북농협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퇴직 동인, 가족들까지 폭넓게 그 대상을 포함시

켜 더 좋은 조건의 요양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또한 이중요양병원 임직원 대상 건강관리 특강 기회도 가질 계획이며, 전북농협은 이중요양병원 직원들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 도모에도 힘쓰기로 했다. NH농협본부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내 각종 병원, 장례식장 등과의 지속



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전북농협 임직원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철도의 날 기념 고객감사 이벤트

코레일 전북본부(김진준 본부장)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8일 철도의 날을 기념해 '철도의 날 응원 해시태그 이벤트', '철도 쿨즈 맞추기' 등 다양한 고객감사 이벤트를 시행한다. '철도의 날 응원 해시태그 이벤트

는 철도의 날인 28일에 익산역, 전주역, 정읍역, 남원역에 게시된 해시태그 포스트에서 철도의 날 응원 메시지를 적어 개인 SNS에 필수해시태그(#628철도의날 또는 #코레일전북본부)와 함께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추

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철도의 날을 전후, 추첨을 통해 KTX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열차 10% 할인쿠폰 증정, 철도관광 상품 이용객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NH농협카드, 해외이용 특화 '올바른 TRAVEL카드' 출시

해외여행에서 7% 할인
- 해외 여행점에서 7% 할인
- 쇼핑·생활·여가업종 최대 10% 할인에 인천공항 무료교통 서비스까지

해의 가맹점에서 7% 할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해외이용에 특화된 올바른 TRAVEL카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바른 TRAVEL카드'는 신용 2종(일본특화 1종, 중국특화 1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의 가맹점 해외 사이트 포함 어디서나 7% 할인 및 국내 면세점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본 대표 관광지 도쿄 타워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일본 특화) 및 중국(중국 특화) 등이 특별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쇼핑업종(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온라인 쇼핑), 생활

업종(편의점, 커피, 베이커리), 여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업종에 대해서는 5~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 2회까지 인천공항 무료 교통 서비스(리무진버스, 공항철도지프통영차, 고속도로)를 제공한다. 카드 발급은 전국 (NH농협영업점,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조건,혜택)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정읍우체국 직원 정신건강 증진 위한 특강 실시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지난 28일 정읍우체국 회의실에서 김재평 국장 등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재원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스트레스와 우울감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 대민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우체국 직원들을 대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강순으로 진행했다. 김 청장은 "오늘 교육을 계기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의 소중함을 한번 더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지난 25일 전주우편집중국에서, 28일 군산우체국에서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